

## ❖ 『이고리 원정기』, 중세 동슬라브 문학의 백미이자 비극적 종말에의 서글픈 전주곡

### 1. 작품의 발견과 연구, 의의

- 1790년대 초반, 러시아의 고문서연구가인 무신-푸쉬킨 백작이 야로슬라프의 수도원에서 한 수사본 필사 묶음(17세기)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 이후 카람진 등이 이 작품의 발견 사실을 널리 알렸고, 작품의 출판 작업이 진행되어 1793년, 당시 황제였던 예카테리나 여제를 위한 진상본(사본)이 만들어졌다.
- 그리고 1800년, 당대 최고의 러시아 고문헌학 전문가들의 참여로 발견된 수사본이 최초로 출판됨. 그러나 발견된 수사본 원본은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략 때 모스크바가 불타는 사건과 함께 소실되었다.
-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판본은 여제를 위한 사본과 초판 출판본 밖에 없음. 1790년대, 러시아의 고문헌학, 역사언어학, 중세문학, 역사학 등의 수준이 충분히 발달한 것은 아니고, 또 『이고리 원정기』 작품 자체의 다른 필사본이 발견,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불완전한 점이 존재함. 텍스트 내에서도 정확한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 곳이 아직도 4~5군데 남아있다.
- 그러나 1800년대 초반, 즉 19세기 초반부터 일기 시작한 러시아의 역사, 언어, 민속, 문학 등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연구열은 『이고리 원정기』와 같은 작품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게 되었고 이는 이후 러시아 인문학 전반의 발전을 유도하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열기는 당시 문단의 낭만주의적 흐름과도 맞물려 한층 증폭되었고, 화가, 작곡가, 시인 등 후대의 많은 예술가들이 영감의 원천으로도 끊임없이 작용했다.
- 한편으론, 『원정기』 텍스트의 불완전한 점들 때문에 20세기 중반에는 『이고리 원정기』가 1380년 타타르에 맞선 루시인들의 쿨리코보 벌판에서의 승전을 다룬 작품인 『자돈시취나』(Задонщина)를 18세기 후반에 모방한 작품이라는 주장을 야기하는 구실이 되기도 했다.
- 그러나, 모방의 전후 관계에 있어 『원정기』가 원본이 된다는 반박 연구와, 모방이 일어났다는 18세기 후반의 러시아의 시대, 사회 분위기에선 이런 작품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하는 연구 등으로 인해 현재는 모방설이 가라앉았다.
- 20세기 소비에트 시대에는 이 (서구의 의혹인) 모방설에 싸우면서 중세문학에 대한 연구 열기가 매우 높았으며, 이는 결과론적으로 러시아 인문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 2. 문학 작품으로서 『이고리 원정기』

- 1) 시공간적 배경 - 1185년, 노브고로드 세베르스크 공국의 공후 이고리 공의 폴로베츠인들의 영역인 남동부 초원 지대로의 원정, 패배와 포로생활(2년), 그리고 루시 땅으로의 귀환.

2) 이념적 테마 - ① 개인적 공명심과 이기심, 키예프의 대공이자 체르니고프 공국의 올레그의 자손들인 이른바 “올고비치”(Ольгови́чи) 가문의 당시 최고연장 공후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에서 먼저, 이고리 공의 ‘분과적’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고, ② 이고리 공의 실패한 원정과 나포 등으로 폴로베츠와 접경한 루시 땅의 공후가 부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그곳을 돕지 않은 다른 루시 공후들의 무관심에 대한 비난이 있겠으며, ③ 앞의 두 가지를 종합해 외적의 침입을 앞두고 단결하지 않는 루시 땅 공후 전체에 대한 <단합에의 호소>를 이 작품의 이념적 테마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구성 - 일단, 이고리 공의 원정, 전투 등의 사실(史實)에 대한 묘사적 전달에 치중하는 모습이 아니다. 또한 작품의 첫 부분에 “보안”(Боян)이라고 칭해지는 중세적 방랑 음유시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보안과 익명의 작가 자신의 노래인 이 『이고리 원정기』의 은근한 비교가 구성에서 특징적이다.

4) 장르 - 현대의 장르 개념은 물론 아니지만, 중세 동슬라브 당시의 장르 구분으로서 “노래”, “이야기”, “송가”, “애가”, “슬로보” 등, 여러 규정으로 장르 설정을 짐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 자체는 모두 작품의 어느 한 단면을 부각시키거나 거기서 연유한 규정이기도 한다. 『이고리 원정기』류(!)의 작품이 현재까지 더 이상 발견되고 있지 않는 만큼 장르 규정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다분히 현실참여적인, 당대적 메시지를 역시 다분히 서정적이며 시적으로 풀어내는 점에서 “사회적 서정시”(social lyric)라고 규정하는 언급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할 것이다.

5) 시학 - 무엇보다 은유와 상징을 통한 시적이며 서정적인 묘사가 당대 여타 작품들과는 그 수준을 확연하게 구별지어 준다. 혼인과 장례식 모티프와 정서의 뒤집혀진 결합, 전투와 농경의 뒤집혀진 이미지의 이중적 결합과 러시아 땅과 폴로베츠의 땅인 초원의 경계 넘나들, 그리고 이고리 공의 아내인 야로슬라브나의 슬픔의 노래와 그 코스모스적 성격과 이에 화답하는 이고리 공의 탈출의 신비주의적 묘사, 또한 여러 동식물 ‘자연계’의 직접적인 참여 등, 이러한 모두는 중세 동슬라브 문학에서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에 속한다.

6) 언어와 운율 -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운문과 같은 성격을 띤 작품이라고 얘기되며, 또한 “러시아 땅을 위하여”(За Русскую землю!)라는 부분이 운율상, 주제론상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등, 분명 언어적 음률에 상당한 관심을 들여 창작된 작품으로 여겨진다.

7) 작품 창작 시기 - 작품에서 이고리 공의 탈출이 언급되는 만큼 그의 포로 탈출(1187년 10월 1일) 직후 창작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키예프 대공으로 등장하는 스바토슬라프의 장례식에 대한 묘사에 주목해 그의 죽음(1194년)과 작품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성난 황소” 프세볼로드에 대한 찬양에서 비롯해<sup>1)</sup> 1196년 사이의 어떤 시기로 추정하기도 한다.

8) ‘작가’에 대해 - ① 정치적 노선으로 보아서는, 비록 이고리 공의 원정을 질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생환에 기뻐하며 러시아 땅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으며 또한 체르니고프 공국 가문의 조상인 “올고비치”의 후손의 이력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체르니고프 공국 가문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성분이라고 여겨진다 ② 계급 소속으로 보아서는, 공후 가문 자체는 아닌것 같으나, 현존하는 연대기 그 어느 구절에도 등장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언급과 이해가 뛰어나며 상당한 정도의 문자 교육을 습득한 것으로 보아 수도원 등에서 필사와 공후의 대외 전문, 공후와 공국 전체의 여러 대소사와 애경사에 글을 봉헌하던 계층의 한 인물로 여겨진다 ③ 또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큰 틀에선 유지하지만 동슬

1) “영광 있으라!”는 ‘찬양’은 통상 생존해 있는 공후에게 바쳐졌지, 죽은 공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여겨진다. 망자를 위해서는 ‘평온한 휴식’을 빌었다.

라브의 여러 자연신과 신화적(순환적) 세계관을 기꺼이 수용하고 있으며, 민간에서의 구비 문학적 전통에도 밝다는 점에서 당대 중세 서유럽의 방랑 음유시인의 동슬라브(러시아) ‘버전’으로도 여겨진다. 게다가 자신의 선배격인 보얀과의 일종의 ‘언어적 배틀’(Verbal duel) 자체로 이 『이고리 원정기』를 헌사하다고도 여겨지기 때문이다.

9) **‘역사’에 대해** -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야기에 따라”라고 첫 부분에도 나오지만, 공후에게 일방적으로 바치는 미화와 찬사의 송가, 그 대상으로서의 루시 땅의 역사가 아닌 오늘날의 역사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때로는 공후에게 가르침과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원정기』 작가의 보다 실천적인 ‘역사관’이 배면에서 투영된 일종의 사회-정치적 텍스트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10) **후대의 영향에 대해** - 1380년,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루시의 공후들이 타타르 세력과의 쿨리코보(Куликово) 벌판에서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다음에 바쳐진 『자돈시취나』, 즉 ‘돈 강 너머 이야기’의 시학적 모방의 전범으로 여겨졌으리라 추정된다. 『이고리 원정기』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는 작품의 여러 내용과 모티프 등이 회화, 판화, 오페라, 현대 러시아어로의 번역, 민속 공예 등에 활용되었으며, 또한 이 작품으로 인해 현대 러시아 문학, 역사, 인문학 발전 전반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